

인간 동기의 심리학적 이론과 성경적 이해

김 준 수*

국문초록

동기는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며 인간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해에 있어서 그 마음의 동기를 찾는 과정은 필연적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목적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이면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동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심리학적인 견해들을 살피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행동하고 선택하며 변화하는 원인을 연구하였다. 심리학적인 인간이해와 성경적인 인간이해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간 동기의 이해도 차별화된 설명을 하게 된다. 인간의 복잡한 행동 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진다. 그러기에 인간의 진정한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며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근본적으로 영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중심단어 : 동기, 욕구이론, 제어이론, 우상, 육신의 소욕

• 논문 투고일: 2012년 4월 12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15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2년 5월 2일

I. 여는 글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변화이기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삶의 파괴적이고 비성경적인 태도와 행동을 버리고 건설적이고 성경적인 태도와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끌어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상담자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담자에게 스스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다. 인간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기는 사회상황에서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표출된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¹⁾ 한 사람의 행동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만 일어나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내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동기라고 부른다.²⁾ 동기는 인간 행동의 방향과 선택한 행동의 지속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일수록 무엇인가를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며 선택한 행동을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 그러나 인간의 동기는 직접 관찰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정한 행동이 일어난 후에 그 행동이 일어난 상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한 행동도 여러 동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동기는 감추려고 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동기로 위장을 시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적인 차이나 성격적인 차이에 의해서 같은 동기도 다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1) 한덕웅, 『인간의 동기심리』 (서울: 백영사, 2005), 2-3.

2) 오윤선,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예영, 2009), 177-178.

3) Zoltan Dornyei,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London: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1), 8.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다.⁴⁾

동기는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며 인간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해에 있어서 그 마음의 동기를 찾는 과정은 필연적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목적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이면에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 동기가 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몰입해서 밤을 새우면서 컴퓨터 앞에 매달려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동기이해는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동기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양한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영적인 일에 수동적이거나 회피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A집사는 주일날 예배 뿐 아니라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회까지 열정적으로 참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데 비해서 B집사는 일주일에 한번 주일예배 참석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이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무엇이 선교사로 하여금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한 작은 부족을 위해서 일평생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이러한 헌신을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말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동기부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신앙생활과 영적인 현상은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으며 그러기에 성경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영적인 현상을 이론적인 틀로 해석하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신앙적인 행위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를 이해하면 좀 더 믿음의 행위를 격려하고 강화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4) 한덕웅, 『인간의 동기심리』, 3-4.

이 글에서는 동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심리학적인 견해들을 살피고 성격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행동하고 선택하며 변화하는 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심리학적인 인간이해와 성격적인 인간이해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간 동기의 이해도 차별화된 설명을 하게 된다.

II. 펴는 글

1. 동기부여의 심리학적인 이해

인간의 동기는 여러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다각도로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심리학적인 견해들을 살피는 과정은 본 연구에서도 중요하다.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원인을 알려고 하는 연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속되었으며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그리고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기이론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욕구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제어이론이다.⁵⁾ 욕구이론은 인간을 기계와 같이 내부나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로 보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욕구이론과 추동이론이다. 이에 비해서 제어이론은 인간을 자기 행동의 궁극적인 결정자로 보는데 인간은 논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선택한다고 본다.

5) Neil J. Smelser & Paul B. Balte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 Behavioral Sciences*, vol. 15 (Amsterdam: Elsevier, 2001), 10110.

1) 욕구이론의 이해

욕구이론은 인간의 대 내외적인 다양한 욕구가 인간행동의 중심역동이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행동동기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이 있다.⁶⁾ 역사적으로 욕구이론의 뿌리가 된 쾌락주의는 인간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개념이며 현대의 많은 이론들도 이 개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쾌락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쾌락을 가져다 주는 행동을 선택하고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행동은 회피하게 된다. 비록 쾌락주의가 개인에게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는 많은 여러 심리이론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연관되어서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는 이론들 가운데 본능설이 있는데 이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본능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며 그 역사는 Thomas Aquinas까지 거슬러 올라 갈 정도로 오래되었다.⁷⁾ 그 후 Charles Darwin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이 본능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였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Sigmund Freud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는 의식적인 것보다 쾌락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무의식적인 본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⁸⁾ 그러나 본능이론은 과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공격을 받았으

6) Freud는 생명과 죽음의 2가지 본능욕구를 주장하고 있으며 McDougall은 18가지의 기본욕구를 기술하고 있고 Maslow는 7가지의 위계적인 욕구가 피라미드 형태로 단계적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비해서 Murray는 20가지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있다고 하였다. Robert E. Franken, *Human Motivation*, 강갑원·김정희 역, 『인간의 동기』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27; Smelser & Balte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 Behavioral Sciences*, 10110.

7) Franken, *Human Motivation*, 19-20.

8) 한덕용, 『인간의 동기심리』, 7-9.

며 Freud가 주장하는 무의식적 동기들이 진정한 본능인지 아니면 학습된 행동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될 뿐 아니라 본능과 행동사이에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점차 그 힘을 잃게 되었다.

그 후에 인간의 동기심리를 개인이 지니는 욕구의 개인차로 설명하는 다양한 욕구이론들이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Murray의 욕구이론, Maslow의 욕구위계이론, 그리고 Alderfer의 생존, 관계, 성장의 욕구이론들이 있다.⁹⁾ Murray는 욕구를 현존하는 불만스러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지각, 지적 작용, 의욕, 행위 등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는 힘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당면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욕구상태를 충족시키는 상황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즉 욕구는 인간의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유지시키는 힘으로 보았는데 기아의 욕구는 음식을 구하는 목적 지향적 행동을 만들며 그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보았다.¹⁰⁾ 그는 인간의 욕구를 일차욕구와 이차 욕구 그리고 외현욕구와 잠재욕구로 나누었다. 일차욕구는 공기, 물, 음식, 성 등과 같은 신체의 만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고 이차욕구는 성취, 자율, 경의, 지배 등과 같은 심리적 만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며 외현욕구는 행동으로 표현된 요구를 말하는데 주로 사회적으로 적절하거나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이며 이와 반대로 잠재욕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욕구들로서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의 제약을 받는 것들이다.¹¹⁾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 수준으로 제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리욕구에서 시작해서 안전욕구, 애정욕구, 존경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실현욕구까지 하위욕구부터 상위욕구까지 순차적으로 나열될 수 있다. 이 욕구위계의 특징은 먼저 낮은 수준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더 높은 수준의 욕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9) 한덕웅, 『인간의 동기심리』, 25.

10) Franken, *Human Motivation*, 12.

11) 한덕웅, 『인간의 동기심리』, 27.

인간의 생리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안전욕구나 애정욕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¹²⁾ Maslow에 의하면 이러한 욕구들은 의식적이기보다는 무의식적인 경우가 많으며 욕구의 위계가 인류에게 공통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으로는 드러나는 동기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물론 인간의 행동을 이 다섯 가지 욕구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이 외에 수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면적인 욕구 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Alderfer는 Maslow의 5가지 위계이론과 비교해서 단순화 시킨 생존욕구, 관계욕구 그리고 성장욕구로 구분되는데 생존욕구와 성장욕구는 Maslow의 생리욕구와 자아실현욕구와 비슷하고 관계욕구는 Maslow의 안전, 애정, 존경욕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물학적인 동기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의 뇌인데 뇌는 신경회로로 연결된 수많은 구조가 있으며 감각수용기가 자극을 받으면 신경회로는 이 정보를 뇌의 여러 부분에 전달하는데 이러한 자극은 저장된 기억정보를 촉발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법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감각이 입력되면 이 정보는 신경회로를 통해서 신경센터에 전달이 되고 신경센터는 적당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최종적인 반응이 결정된다.¹³⁾ 인간에게 행동 동기를 부여하는 것 중 하나가 정서나 감정인데 특정한 뇌 회로의 활성화는 공포, 분노, 또는 행복감과 같은 특정한 정서를 일으켜서 행동을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본다. 이 외에 변연계는 행동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강화시켜 주는 것에 간여하고 전전두엽 피질은 공포와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회피정서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전달물질은

12) Paul D. Meier,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rn, & Donald E.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전요섭 외 역, 『기독교 상담심리학 개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108-110.

13) Meier, Minirth, Wichern, &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104.

기분 조절과 관련이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광범위한 동기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습이론은 학습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는데 Hull은 추동이론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추동이 행동의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행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학습된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¹⁴⁾ 초기 학습 이론가들은 생물학적인 특성이 행동의 에너지를 만들지만 행동의 방향은 학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으며 이는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도 학습의 차이에 따라서 행동의 개인차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한 번 학습된 된 행동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지속적인 행동패턴을 가능하게 하며 생각을 하지 않고도 행동을 반복하도록 만든다. 학습이론은 만일 특정한 행동이 학습된 것이라면 행동의 수정도 가능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수정할 수는 없으며 수동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모든 학습은 주의집중에 달려 있는데 인간은 모든 것을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인 집중을 하게 되며 특히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이나 삶에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또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 때의 보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음식물과 같은 일차적인 강화물도 있고 칭찬과 같은 이차적인 보상 또는 상징적 보상도 있다.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용납을 추구하고 거절을 회피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용납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거절을 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학습되어진다. 모방과 관찰도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 되는데 이러한 학습은 꼭 보상이 없어도 일어나게 되며 그 이유는 인간의 내재된 환경을 학습하려는 내재적 동기가 있다고 본다.¹⁵⁾

14) Franken, *Human Motivation*, 31-37.

15) Franken, *Human Motivation*, 74.

2) 제어이론의 이해

다양한 인간의 욕구가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가면서 욕구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키기보다는 단지 특정한 성향을 발생시킨다고 보게 되면서 인간이 자기 행동을 직접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인간의 동기를 연구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욕구이론이 인간을 자기 행동선택에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는데 비해서 제어이론은 인간이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으며 행동선택의 최종 주체자라로 본다. 인지이론은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의 행동이 환경을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선택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¹⁶⁾ 인지이론은 인간의 정신적 표상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보았으며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욕구나 맹목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습관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세계관을 토대로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동방식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인지가 세상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떤 규칙, 원리, 이론에 따라서 정보를 조작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요소는 생물학적인 충동이나 욕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생물학적인 원인보다 오히려 그 사람의 가치관, 믿음, 세계관과 같은 인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학습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지나치게 결정론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서 인간행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환경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사회 인지이론은 인간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간 개인과 환경 그리고

16) Franken, *Human Motivation*, 50.

행동의 상호연관을 갖는 전체로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¹⁷⁾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동기이론 가운데 내적동기이론이 있는데 이는 인간이 단지 외부의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부과정을 통해서 환경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으로 선택한 자발행동과 외부 원인에 의해서 강요된 타율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믿는 자발행위자는 타율행위자에 비해서 강한 동기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강요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하다고 느끼게 되며 동기효과가 감소된다. Deci의 인지평가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내적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결성과 자신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유능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¹⁸⁾

3) 제어이론과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과정을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적인 동기부여에 중요하다. 자아개념은 자신의 경험에

17) 사회인지이론은 개인, 환경 및 행동이라는 세 요소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인지능력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관찰을 통한 대리학습 능력으로서 인간은 관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대리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매우 광범위하고 통합된 행동양식을 획득할 수 있다. 둘째, 상징의 사용능력으로서 인간이 언어적 상징과 추상적 상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장차 행동의 길잡이가 되도록 경험을 표상 형태로 처리해서 지니고 먼 장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다. 셋째, 장래의 예견능력으로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면 장차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사전에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예상되는 행동은 회피하고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행동은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자기반성능력으로서 인간은 자기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스스로 강화하거나 처벌하는 기능을 지니게 된다. 다섯째, 자기조절능력으로서 인간은 자기 행동의 경과들이 보상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의 상황연계성을 스스로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Franken, *Human Motivation*, 165-168.

18) 한덕웅, 『인간의 동기심리』, 241-247.

의미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인간행동의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동력이 된다.¹⁹⁾ 인간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아개념의 한 측면인 자아 존중감의 정도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진다. 인간의 자아는 학습되기도 하고 새롭게 구성되기도 하는데 일차적으로 자아는 부모나 교사 또는 또래와 같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를 내면화함으로써 형성되기도 하며 또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새로운 신념이 뿌리내리기도 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유지하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내면화 한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수동적으로 주위 사람들의 신념과 태도를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행동을 야기하는 규칙과 원리를 만들어서 시행한다. 이처럼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서 외부세계에 대한 사고방식과 외부세계를 다루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사고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아개념의 한 측면으로서 자신의 가치판단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낮은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성취동기가 낮다.

인간의 행동동기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아개념의 영역이 가능자인데 가능자라는 어떤 전문영역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만들어진다. 가능자라는 자아개념의 미래 지향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되고자 하는 이상적 자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즉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자아의 격차는 희망, 바람, 열망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상적 자아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하려는 긍정적인 행동을 야기한다. 이 뿐 아니라 이상적

19) Franken, *Human Motivation*, 350.

자아에 맞추어서 살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이 생성되기 때문에 좋은 정서의 근원이 되는 반면에 이상적 자아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많아질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많아지며 나쁜 정서의 근원이 된다. 긍정적 행동의 동기부여가 되는 가능자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 개념과 유능감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하며 이러한 가능자아는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여러 요소들을 의지적으로 새롭게 결합하고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2. 동기이론의 기독교적인 평가

동기이론들은 한 마디로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에 대한 설명이며 상답을 위한 일차적인 질문이다. 인간을 움직이는 요소들을 분류하면 일차적으로는 인간 내면의 무의식적인 욕구들인데 나의 행동은 나의 욕구를 채우려는 다양한 시도들이며 이러한 욕구들은 사회적인 경험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환경의 영향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행동을 한두 가지 원인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심리이론들도 이러한 상호작용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한 측면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동기이론은 근본적으로 진화론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영적인 측면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Maslow의 욕구이론도 진화론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성이 인간을 성숙과 자아실현으로 인도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면에는 인간을 진화된 동물로 인식하는 전제가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물학적인 본성에 충실하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자아실현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악은 단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된다. 진화론적인 인간론은 인간이 선한 본성을 지녔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악을 설명할 수 없다. Maslow에게 인간의 욕망은 악하거나 선한 개념이 아니라 단지 갈망하거나 원하는 것이며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욕구 자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충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실현에 이르기 전에는 극히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구 충족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졌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며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만 상위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애쓰면서 살지만 삶의 무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아도 먼저 타인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면서 베풀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인간의 동기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성경은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욕구를 절대화 시키지 않으며 욕구 충족이 인간 행복의 필수요소로 보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의 욕구가 절대화되면 욕구가 우상이 되어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고 본다.

3. 성경적 동기이론연구

성경적 상담자들에게 인간행동의 이면에 있는 동기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성경적 상담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드러내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성경적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으며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이기 빼하시어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기에 동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는 성경적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관심 있는 주제이다. 성경에서도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는 말씀들의 공통점은 변화의 중심은 마음이라는 사실

을 강조하고 있다.²⁰⁾ 성경은 인간 행동의 동기부여에 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성경적 상담자들 간에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성경적 상담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인 Lawrence Crabb과 David Powlison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그 답을 찾아 볼 것이다.²¹⁾ 심리이론에서 인간의 복잡한 동기부여를 설명하는 두 개념인 욕구이론과 제어이론을 성경적 상담에 적용해 본다면 Crabb은 좀 더 욕구이론에 가까운 동기의 이해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해서 Powlison은 제어이론에 가까운 인간의 동기를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Crabb은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더 비중을 두면서 욕구는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욕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우지 못하고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Crabb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기는 반면에 Powlison은 좀 더 욕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욕구를 제어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인간의 능동적이고 선택적인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Powlison은 인간이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신앙적인 이슈이고 예배적인 이슈임을 강조하면서 욕구를 다스리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0) 변화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구절인 에베소서 4:22-24에서도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과정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1) Lawrence Crabb은 임상심리학자로 훈련을 받았지만 심리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문제를 상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성경적 상담을 발전시켰으며 Colorado Christian University에서 성경적 상담학과를 만들어서 대학원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David Powlison은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와 Jay E. Adams가 세운 CCEF(Christian Counseling & Educational Foundation)의 교수로서 오랫동안 성경적 상담을 가르치고 연구하였다. 그는 JBC(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의 편집장으로서 Adams 이후에 그의 성경적 상담 이론을 체계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인간행동의 동기부여에 대한 개념을 고찰해 보면서 인간 동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Lawrence Crabb의 인간 동기이해

Lawrence Crabb은 임상심리를 전공한 심리학자로서 심리학적인 발견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접목시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성경적 인간관에 기초한 인간 동기론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으며 무의미한 행동은 없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 서게으름, 꾸물거림, 거부 등은 무가치하다는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다.²²⁾ 즉 인간의 행동 동기의 중심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욕구의 결핍을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주신 것이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²³⁾ 그는 인간의 욕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 욕구는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간이해의 핵심이라고 본다. 그는 Maslow의 욕구위계 이론을 인간이해의 기본적인 틀로 사용하는데 육체적이고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필요는 Maslow의 처음 두 가지 인 육체적 필요와 안전과 일치한다. 그리고 인간의 인격적 필요 즉 안전과 중요성은 Maslow의 세 번째 네 번째 필요인 사랑과 존경의 필요와 일치하며 마지막으로 Maslow의 궁극적 필요인 자아실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이

22) Crabb의 기본적인 인간 동기 5가지는 첫째 필요는 동기를 낳는다. 둘째 동기는 행복을 유발시키는 에너지이다. 셋째 동기화 된 행동은 하나의 목표를 지향한다. 넷째 목표가 성취 불가능 할 때 만족되지 못한 필요는 부정적 정서들의 원천이 되어 중요성과 안전의 위협으로 인한 자기방어를 유발한다. 다섯째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반드시 있다.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베다니, 1994), 307.

23) Lawrence J. Crabb,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전요섭 역, 『성경적 상담학 개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5), 69-70.

타적인 봉사와 헌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²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져도 더 깊은 존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된 상태로 고통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단지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진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더 깊은 인간 내면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본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으며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죄악 된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불안, 우울, 근거 없는 공포심, 분노 등과 같은 심리적인 징후들은 개인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채워져야 할 인간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채워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두 가지 필요가 첫째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며 둘째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²⁵⁾ 인간은 이 두 가지 욕구가 채워져야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을 수 있고 그 결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원래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타락 전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완벽하게 채움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후에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은 필요로만 남아 있어서 인간은 그 필요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많은 부를 쌓으려고도 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 그러기에 인

24) Lawrence J.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9), 81-83

25) Crabb,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70-88.

간은 끊임없이 존재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동시에 해소되지 않는 불안감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은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과 우리가 진정 어떠한 존재인가가 밝혀질 때에 우리가 거부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²⁶⁾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존재의 의미를 인간이 범죄 후에 스스로 채우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기에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야기된 근본적인 필요의 결핍을 간파하여야 한다. 인간의 문제는 이러한 결핍을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Crabb은 일반심리학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하면서 죄의 문제를 신경증이나 정신적 결함정도로 간과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성경적인 상담은 성경적인 인간 이해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문제의 원인이기에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존재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그는 인간의 동기는 근본적인 욕구를 근거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았다.

Crabb의 이러한 주장은 Maslow의 필요이론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재구성한 것인데 이에 대한 찬반의 논란이 있다. Crabb의 이론이 공헌한 긍정적인 영역은 일반 심리이론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재활용해서 기독교상담의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시에 부정적인 영역은 성경의 인간이해를 왜곡시켜서 심리학적인 인간이해로 변질시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Maslow의 이론을 기독교적으로 재활용하는 과정

26) Lawrence J. Crabb & Dan B. Allender, *The Key to Caring*, 오현미·이용복 역, 『격려를 통한 상담』 (서울: 나침판사, 1997), 39.

에서 인간의 필요를 절대화시켜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결핍되고 부족한 존재라는 그의 전제까지도 받아들이는 실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이 창조 때부터 근본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욕구를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 결핍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오해를 할 여지가 있다. 인간의 필요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욕구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이것이 채워져야만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으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인간 필요 중심적인 삶으로 변질 될 수 있다. 그는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느낌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채워진다고 보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느끼기 위해서 자신을 가치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²⁷⁾

2) David Powlison의 인간 동기이해

David Powlison은 심리이론에 기초한 인간이해를 배척하는 Jay Adams의 노선에 선 성경적 상담자로서 Crabb은 심리적 인간 동기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면 그는 좀 더 성경말씀 자체에 근거해서 인간 동기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성경은 성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행동의 변화 이전에 먼저 마음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기에 성경을 토대로

27) David Powlison, "Idols of Heart and Vanity Fair,"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3, no. 2 (1995): 40.

한 상담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제시하는가에 일치하는 상담모델이 되어야한다.²⁸⁾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히 4:12).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David Powlison은 성경적 상담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행동을 좌우하는 동기부여는 심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영역이 아니라 신앙적인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영역이라고 하였다.²⁹⁾ 인간의 특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부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생물학적 또는 사회심리학적인 동기를 논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행동을 누가 다스리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Powlison은 우상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인간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우상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단어로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인이 되며 기쁨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³⁰⁾ 우상은 단순한 나무 목상이나 금속신상을 새겨서 절하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마음을 두거나 동기를 부여하거나 우리가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지칭한다.³¹⁾ 우상이 우리 삶을 통제하여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은 “기능적인 신”이 되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적인 유일신인 하나님보다 신자의 삶속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³²⁾ “기능적인 신”은 누구든지 또는 무엇이든지 한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생각, 감정, 태도 등

28) David Powlison, “X-ray Questions: Drawing Out the Whys and Wherefores of Human Behavior,”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8, no. 1 (1999): 2.

29) Powlison, “Idols of Heart and Vanity Fair,” 39.

30)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서 구속하셔서 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배하도록 부르고 계신다. 겔 14:1-8; 행 26:18; 엡 5:5; 살전 1:9이하; 요일 5:21; 렘 17:5; 약 4:11-12.

31) 눅 12:4-5, 29; 고전 4:5; 10:19; 시 119:133; 엡 5:5; 사 42:17; 빌 3:19.

32) Ken Sande, *The Peacemaker*, 신대현 역, 『화평하게 하는 자』 (서울: 도서출판피스메이커, 2010), 132-134.

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것들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정 반대의 입장에 서서 대결적인 국면을 나타낸다.³³⁾ 그러기에 성경에서 인간 행동의 동기에 관한 질문은 곧 마음의 주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결국 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아니면 다른 우상이 다스리는가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인간 행동의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다스리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우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곧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와 직결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신앙적인 예배의 행동이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상이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주체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내면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복수, 탐욕과 같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욕구들도 있지만 동시에 직업적인 성공을 바라거나 성장하는 교회를 원하거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적절한 요구들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욕구가 모두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은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으면서 선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채우려하기 보다는 악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제는 이러한 욕구가 자신의 성취나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절대화 시켜서 욕구를 충족시켜서 만족하고 성취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점차 죄로 가득한 요구사항이 되어서 채워야만 한다고 집착하게 된다. 욕구 중에는 악한 욕구도 있고 선한 욕구도 있는데 우상화의 과정은 꼭 악한 욕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욕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욕구가 커지면 집착하게 되고 욕구 자체가 절대화되어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선한 욕구가 커져서 우상이 될 수 있는 시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

33) Powlison, “X-ray Questions,” 3.

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³⁴⁾ 욕구는 내가 원하지만 스스로 얻을 수 없고 다른 누군가의 조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기에³⁵⁾ 욕구가 커져서 절대화되면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기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별 할 길을 찾으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할 것을 강요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우상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확실한 표시 중 하나가 된다.³⁶⁾ 이러한 태도는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분열로 몰아가기도 한다.

III. 닫는 글

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행동을 한 이유는 수 없이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행동의 동기부여를 찾아서 이해하는 것은 상담과정에서 중요하고 필요하다. 인간 행동은 자극에 의해서만 일어나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내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동기라고 부른다. 동기는 인간 행동의 방향

34) “만약 ___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안정이 될 텐데”라는 조건에 나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지키고 싶거나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신뢰를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어떤 특정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좌절, 염려, 분개, 신랄함, 분노, 우울함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거나 상처를 준다 해도 가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의도가 있는 어떤 바라는 것이 내게 있는가? Sande, *The Peacemaker*, 135-136.

35) Crabb & Allender, *The Key to Caring*, 62.

36)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이유 중 하나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과 선택한 행동의 지속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일수록 무엇인가를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며 선택한 행동을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인간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견해와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인간의 같은 행동을 전혀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Crabb은 Maslow의 이론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여서 인간의 필요는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며 Powlison은 인간의 욕구를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인간의 행동동기를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 사람의 이론을 비교 분석하면서 Crabb의 이론보다는 Powlison의 이론이 좀 더 성경에 근거한 인간 행동의 원인을 설명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행동을 야기하는 내면의 힘을 성경에서는 ‘마음의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는 ‘육신의 정욕’, ‘돈을 사랑함’, ‘사람에 대한 두려움’ ‘교만’ 등과 같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³⁷⁾ 인간의 욕구를 구약에서는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을 움직이는 외부적인 힘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인간은 지속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인간의 복잡한 행동 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진다. 그러기에 인간의 진정한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며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근본적으로 영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37) 갈 5:16-24; 엡 2:3, 4:22; 벧전 2:11, 4:2; 요일 2:16; 약 1:14, 15.

【 참고문헌 】

- 오윤선.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예영, 2009.
- 정옥분.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2006.
-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베다니, 1994.
- 한덕웅. 『인간의 동기심리』. 서울: 백영사, 2005.
- Adams, Jay E. "Biblical Interpretation and Counseling."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6, no. 3 (1998).
- Beck, Robert C. *Motiv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0.
- Collins, Gary R. *Man in Motion*. Carol Stream, IL.: Creation House, 1973.
- Crabb, Lawrence J.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전요섭 역. 『성경적 상담학개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5.
- Crabb, Lawrence J. & Dan B. Allender. *The Key to Caring*. 오현미·이용복 역. 『격려를 통한 상담』. 서울: 나침판사, 1997.
- Darwin, Charles R. "Comparison of the Mental Powers of Man and the Lower Animals." In *Milestones in Motivation*, ed. Wallace A Russel.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70.
- Dornyei, Zoltan.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London: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1.
- Ferguson, Eva Dreikurs. *Motiv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Franken, Robert E. *Human Motivation*. 강갑원·김정희 역. 『인간의 동기』. 서울: 시그마 프레스, 2009.
- Johnson, Eric L. *Foundation for Soul Care*. 전요섭 외 역. 『기독교 심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Koteskey, Ronald L. *Psycholog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0.
- Lane, Timothy S. & Paul David Tripp. *How People Change*.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06.
- Maslow, Abraham H.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이해성 역. 『존재의 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 Meier, Paul D.,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rn, & Donald E.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전요섭 외 역. 『기독교 상담심리학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Powlison, David. "Idols of Heart and Vanity Fair."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3, no. 2 (1995).
- Powlison, David. "X-ray Questions: Drawing Out the Whys and Wherefores of Human Behavior."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8, no. 1 (1999).
- Sande, Ken. *The Peacemaker*. 신대현 역. 『화평하게 하는 자』. 서울: 도서출판 피스메이커, 2010.
- Smelser, Neil J. & Paul B. Balte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 Behavioral Sciences*. Vol. 15. Amsterdam: Elsevier, 2001.
- Tripp, Paul David. "Speaking Redemptively."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6, no. 3 (1998).
- Welch, Edward T. "A Letter to an Alcoholic."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6, no. 3 (1998).
- Woodworth, Robert S. "On a Distinction Between 'Drive' and 'Mechanism'." In *Milestones in Motivation*, ed. Wallace A. Russel.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70.

【 Abstract 】

A Biblical Understanding and Psychological Theories of the Human Motivation

Jun Soo Kim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Human have sought to explain and understand why people behave the way they do. In everyday life one notices that people are sometimes angry and sometimes fearful, sometimes energetic and sometimes lethargic. The causes of behavior are often very complex and have no simple answers. Even when two people show similar behavior-as when two church members attend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regularly-they may have do so for very different reasons. Psychologists, in their experimental investigation over the years, arrived at several broad explanations to describe how people are motivated. Instinct was used to describe inborn characteristics viewing humans as animal or a machine. Later many psychologists have rejected using the term, viewing humans as more cognitive and complex being. Need reduction theory is another explanation explaining human motivation. This theory points the fact that the satisfactio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needs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behavior.

Biblical understanding of human motivation focus on the desires that rule the human heart. My daily behavior is my attempt to get what is important to me in various situations and relationships. My choices and actions always reveal the desires that rule my heart.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e human motivation is the issue of worship. Our hearts are always being ruled by someone or something. Whatever controls our hearts will control our responses to people and situations. In the biblical view, we are religious people either worshipping true God or idols.

Key words: motivation, needs theory, action control, idols, acts of the sinful nature